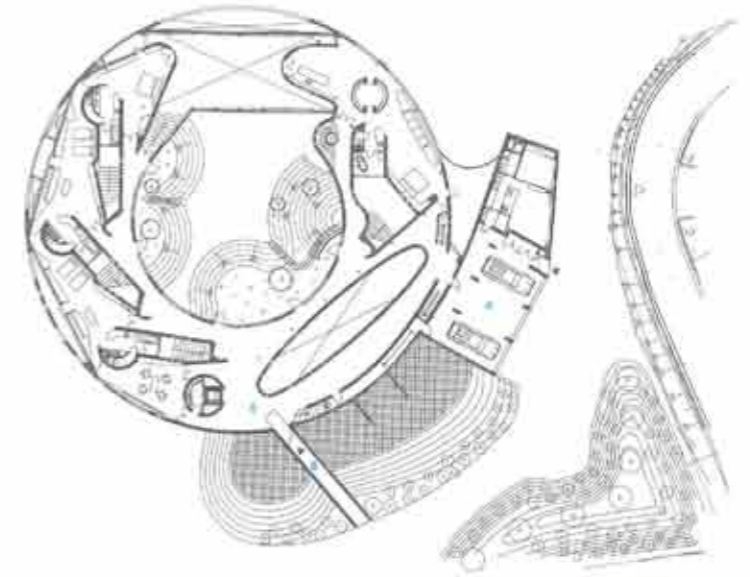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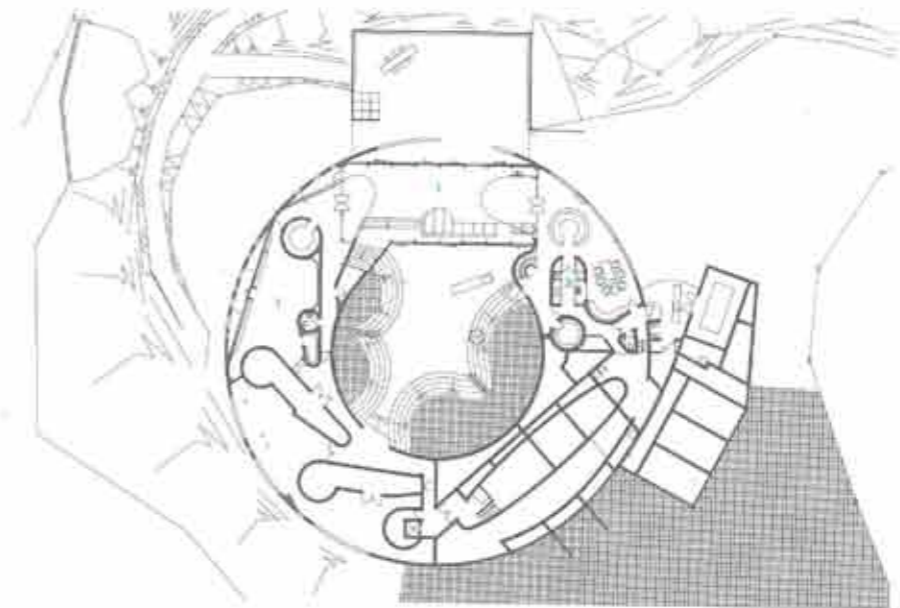


풍경 안에 통합되어 있는 빌라본데는 생태학적으로 고려된 프로젝트이다. 이전에는 언덕이었던 곳이 바다에 의해 재창조되었고, 그곳에 개인 박물관을 가진 집을 계획하였다. 이 건축물은 바람, 빛, 열의 교환과 바다를 생각하며 지어진 것이다. 바위로 가득 찬 절벽은 바람이 많이 부는 북쪽 방향을 향한 바다로 노출되어 있다. 기본 개념은 바람 속에서 활공하는 모서리 없는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다. 건물의 전면에는 보호와 조연, 넓은 전망을 위해 만든 크고 작은 구멍들이 건물 안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서쪽으로는 이중으로 된 전면이 구멍들을 계획하여 지나치게 열이 오르는 문제나 강한 바람을 막아 준다. 북쪽에는 이중 전면이 아닌 하나의 전면이 빛이 더 필요한 곳에 지어져 있다. 중앙에 있는 정원은 남쪽의 빛을 받아 들어 건물 안으로 비춘다. 원 모양은 절벽에 맞출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바닷가의 옛 요새를 떠올리게 하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원은 또한 기본적이고 친숙한 형태이다. 원형은 유동적이며 자유롭고 다양해서 모든 방들이 연결되고, 바다를 바라보며 다닐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준다.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색은 건축물에 제공되어진 색들이다. 풍경을 집 안으로 통과시켜 펼쳐지게 하려는 의도로, 이 집의 전면은 풍경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건축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건물은 건축을 통해 사람을 감싸고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풍경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동쪽은 부엌, 식당, 수영장, 스피와 가까운

기본적인 아파트이고, 서쪽에는 아외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과 수영장으로 갈 수 있는 지붕에 인접한 게스트 룸이 있다. 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지상에서 들쭉날 장소로, 전시실은 바다를 바라보는 정원 주위 여기 저기에 형성되어 있다. 언덕에 숨겨진 이 장소는 열의 균형이 잘 맞는 곳이다. 이곳의 모든 부분에는 생물 기후학이 적용되어 있다. 모든 주변 환경 안에서 열의 교환, 자연 환기를 위한 호스들이 1층을 순환하면서 자연적인 에어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마루 아래로 겨울에는 열 패널에 의해 데워진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순환하고 있다. 열 패널을 500㎡의 태양 패널로, 지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곳에서 보이도 눈에 띄지 않는다. 수영장과 그 안에 담겨 있는 80㎡의 물 역시 훌륭한 열 조절 역할을 한다. 40cm의 흙이 깔린 지붕 정원은 매우 효과적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며, 내부 정원은 더운 공기를 울려고 신선한 공기를 잡아 당겨 대류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 그 결과는 언덕에 빈틈 없는 건축물이다. 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언덕에서 보면 건축물이 솟아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바다를 향한 독특한 전망을 지난 세계로부터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재료 역시 주의 깊게 선택되어 마루는 연필로 다닐 수 있고, 수영장과 그 주변은 작은(불룩한) 돌로 되어 있으며 가구들은 재료의 천연적인 성질을 유지하면서 단순하고 기본적인 패턴과 기호로 디자인되었다. 마치 세련됨이 본질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한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LA RONDE

데

ECT_HENRI GUEYDAN ARCHITECT & ASSOCIATES



a Ronde> is an experience in term of integration in the landscape with very logical considerations. A former hill has been recreated by the sea, in which use with its private museum. This architecture is thought from the wind, the thermal exchanges, the sea. A rocky cliff comes out in the sea very windy and oriented. The idea is to find a shape gliding in the wind without angles. The facades have its role of displaying the light in the building by big or small holes for protection, lighting, panoramic views. On west side, those holes are combined with a double facade which prevent from over heating problem, and strong winds. On north side, no double facade, a single one where the light is more necessary. In the center, a courtyard receives the south light and displays it into the building. The circle is very practical as it fits the cliff as well as to make a sort

of panoramic tower reminding the old fortress by the sea from where you can see without being seen. The circle is also a fundamental intimate shape. Circulations are fluid, free multiples, all the rooms are connected as the house itself becomes a wandering place, longing the sea. The color of the coast line gives the color to the architecture. The idea is to discolour the landscape through the house as the house was a magic box. This facade is focusing the landscape and let it come into the architecture. The building is enveloping the people through the architecture, and developing the panorama around it.

This house has two parts: On the east side, the principal appartement near the kitchen, dining room, pool, spa. On the west side, guest rooms communicate to the roof by exterior stairs bringing them to the roof and the pool. The idea is to

emerge from the earth in a place where you feel alone with the sea. The exhibition place is a wandering one around the courtyard looking at the sea.

This place hidden in a hill gives at the same time a good thermal balance. A bi-climatic architecture takes part of all aspects of a place. In all the surroundings, hoses circulate in the ground for thermal exchanges, for a natural ventilation and gives a real natural air conditioning system. At the same time, in the floor, circulates water warmed by thermal panels in winter and cold water in summer. 500m² of solar panels are positioned on the roof top, not visible from anywhere. The pool and its 80m³ of water give a good thermal weight as well. The garden roof of 40cm thick earth gives a very effective insulation. The inner garden makes a convection system as the heat goes up and attracts fresh air. The result is an

architecture half underground. It is not built on the hill but from the hill seems to grow the architecture.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we are out from the world with unique views to the sea. The materials are also well chosen. The flooring is made for bare feet, the surrounding of the pool, the pool itself are made by small (emerging) stones, the furnitures keep the natural of the materials and are designed with simple and basic patterns and principles. As if sophistication was joining a new idea of the essential. Written by Henri Gueydan architect & associates

Location Japan **Use** House, private museum **Project area** 1,800m² **Architect** Henri Gueydan
Photographer Ichii, Toshihisa **Editor** Sun-A LEE